

개항기 감성 속으로...17~19일 목포 문화유산 야행

3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뮤지컬 ‘모던타임즈’ 서막
재즈쇼·명창·전통춤 공연... ‘K-미식존’ 다양한 먹거리

‘목포 문화유산 야행(夜行)’ 행사가 17일부터 19일까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년 연속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모던타임즈, 목포개항이야기’를 주제로 근대 개항기의 목포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개막 첫날인 17일에는 목포의 개항기를 담은 뮤지컬 ‘모던타임즈’가 무대에 올라 야행의 서막을 연다.
특히 4·8만세운동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개막주제공연은 역사와 예술이 결합된 무대로 관람객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역사관 2관에서는 목포대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합주 공연 ‘밤, 문화유산 그리고 음악’, 재즈공연 ‘한국의 뉴올리언즈 목포에서 목포재즈 쇼를 만나다’, 시대별 명곡으로 구성된 ‘목포 in 랩

소드, 시간여행콘서트’ 등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경동성당에서는 목포 무형유산 보유자 박방금·안부덕 명창과 제자들이 참여하는 ‘명창을 만나다’를 비롯해 목포 출신 유명인 고(故) 우봉 이매방의 전통춤 공연, 한국장작무용,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또 성당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음악이 어우러진 ‘음악에 물드는 경동의 밤거리’ 공연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에서는 국가무형유산인 옥(玉)장 장주원 선생의 해설이 있는 옥공예시연과 전시가 열린다. 야외 체험존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전래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는 특히 옛 유달주유소 공터에 ‘K-미식존’이 새롭게 조성돼 낙지 등 목포 해산물을 활용한



목포 문화유산 야행 포스터.

간편식 등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근대역사거리 일원에는 ‘달빛기행소원등’, 근대틀리버스체험, 경성스타일북창 체험 등이 진행된다.
목포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해양권역예담고, 목포문화재단, 보해양조 등 지역 기관이 참여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야행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자주적 개항도시로서 목포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군 노화읍 마음 치유 센터 건립 예정지. <완도군 제공>

완도에 ‘마음 치유 센터’ 들어선다

6월 착공 내년 상반기 개관

전시장·공방실·마음 치유 정원

완도에 새로운 개념의 치유 공간인 마음 치유 센터가 들어선다.
완도군은 예술 치유 복합 문화 공간 ‘마음 치유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27억원, 대우재단 재원 13억 3000만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노화읍 대우재단 소유 옛 완도대우병원 부지 내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게 골자다.
지난 6월 착공했으며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

표로 한다.
센터에는 전시장, 작업 공방실, 마음 치유 정원 등이 들어서며 ‘예술과 회복’을 주제로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 중인 건강돌봄센터와 함께 주민의 신체·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치유의 예술 섬’과 연계해 노화·보길·소안을 아우르는 치유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마음 치유 센터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예술과 치유를 경험하는 문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제25회 국제꽃장식대회’가 신안 입해를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다. 개막 준비 모습. <신안군 제공>

신안 K-플라워 예술 국제적 거점 도약...압해읍서 국제꽃장식대회

17~19일 작품 68건 출품

‘제25회 국제꽃장식대회’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신안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서 개최된다.
2001년 시작되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는 이 대회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꽃 예술 전문가들과 전공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개최지 신안군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아 ‘바다·섬·정원’이라는 주제로 더욱 다채롭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접수 결과 총 68건의 작품이 출품 예정이다. 꽃장식 작품 57건과 바다

장식 작품 1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참가팀은 자신들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을 응축한 꽃 예술의 향연을 펼쳐 보이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눈길을 끈다.
대회를 주관하는 방식꽃예술원 원장이자 마이스터인 방식 명장의 예술 세계와 그간의 국제꽃장식대회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방식 마이스터 스토리존’이 운영된다.
꽃 예술에 다소 생소한 관람객들도 대가의 예술적 발자취를 따라가며 꽃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친근한 예술 분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25년 역사의 국제대회 명성에 걸맞게 네덜란드와 호주 등 13개국 대사 부인을 비롯한 총 15개 해외 팀이 행사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더한다.
식전 행사로는 한국무용과 아름다운 플라보레이션이 펼쳐져, K-플라워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연은 일반부와 단체부, 청소년부, 바다장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다수의 상이 수여된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꽃 예술을 통해 세계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신안군이 K-플라워 예술의 국제적 거점으로 더욱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13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돌봄 시설로 운영할 새싹돌봄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영암군 새싹돌봄센터 개관...돌봄 사각 없앤다

공동체 방식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영암군이 최근 새싹돌봄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새싹돌봄센터는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에 참여하는 열린 공동체 방식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돌봄 시설이 국가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센터는 1층 공동육아나눔터, 2·3층 주민공동체 동아리실로 이뤄져 돌봄 복지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영암읍민과 단체의 활동공간으로도 쓰일 예정이다.
센터 운영을 맡은 영암월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품앗이 돌봄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각종 공모사업 지원 등으로 군민 누구나 돌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공간으로 새싹돌봄센터가 자리 잡길 바란다”라며 “영암군은 돌봄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18홀 묘량 파크골프장 개장...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사업비 12억 3000만원 투입 조성

영광군이 18홀 규모의 묘량 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
영광군은 묘량면 신천리 일원 2만2000㎡ 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묘량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2억 30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되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코스는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묘량 파크골프장은 친수공간을 활용해 시원하고 쾌적하게 조성된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푸르른 잔디 위에서 공을 치며 이웃과 함께 걷고, 세대가 아우러져 웃음과 건강을 나누는 영광군 생활체육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지난 13일 지역 주민과 체육동호인,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묘량 파크골프장 개장식이 열렸다. <영광군 제공>

무안군 ‘맛플무안몰’ 10월 한달간 할인 이벤트

무안군이 무안군 공식 소품몰 ‘맛플무안몰’에서 소비자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10월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8일 몽탄면 영산강변에서 개최되는 ‘하늘아래 펼쳐진 코스모스 꽃바다, 몽탄 코스모스 축제’를 기념해 ‘맛플무안몰’에 입점된 전 품목에 대해

2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프로모션 기간은 17일까지이며, 회원 1인당 2매 최대 2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쿠폰은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맛플무안몰 회원 5만 명 돌파 기념 감사기획전을 연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랠렛

이벤트는 “맛플무안몰”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랠렛을 돌려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무작위로 제공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역 농가의 끊임없는 노력과 전국 소비자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회원 수 5만 명을 돌파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발전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장관상’

진도군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사진> 진도군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주민 중심의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강화 ▲보건의료 역량 강화 및 감염병 관리로 지역사회의 건강 기반 조성 ▲치매 및 정신안정장 구축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역 보건의료 수준의 개선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진도군이 추진해 온 노



력의 결과를 인정받았다”라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실천해 군민이 주인인 살기좋은 진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